

경북도, '통합돌봄'으로 어르신·장애인 안정적 생활 돕는다

도내 전체 대상자 약 75만명 추산 총 184억 편성... 의료 인프라 보완 지원기관으로 경북행복재단 지정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부터 전국 시행에 맞춰 제도 기반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를 마무리했다.

통합돌봄은 2024년 3월 법률 제정 이후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되는 정책으로, 거주지역에서 의료·요양·건강·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다. 여러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개인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노인인구와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장애인 등으로 우선 필요도가 높은 대상부터 기존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 향후 중증정신질환자와 전

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내 전체 대상자는 약 7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장기요양 인정자와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 돌봄 중점군, 고령 장애인, 치매환자 등 약 32만 명이 우선 관리 대상이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통합지원협의체 구축을 완료했다. 2026년 예산으로는 특화서비스 확충 144억 원을 포함해 총 184억 원을 편성하고, 재택의료센터 28개소를 지정해 의료

인프라 보완에 나섰다. 또 경북행복재단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시군과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해 왔다. 2023년 의성군을 시작으로 시범 사업이 확대돼 지난해 9월에는 도내 22개 시군 모두 참여했으며, 총 1,830 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했다. 읍면동 참여율도 74% 수준으로 높아졌다. 본사업 시행에 맞춰 수행기관 공모

를 대부분 마쳤으며,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개설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도 갖췄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읍면동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돌봄 필요도 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통합지원회의에서 최종 서비스가 확정된다.

경북도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함께 사는 경북'을 목표로 지역 공동체와 주민 참여 기반의 돌봄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형과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중심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특화 서비스 확대, AI 기반 돌봄 서비스 도입, 복지형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27년까지는 도입 단계로 운영 기반 구축에 집중하는 만큼, 경북도도 사업 평가와 지역 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n9@metroseou.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국제금융센터지수 23위

부산시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 측정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평가에서 전 세계 120개 금융도시 중 2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영국 컨설팅그룹 지앤이 발표 한 보고서에 다른 것으로 이번 성과는 국내 외 2014년 이후 최고 성적이다. 전 평가 대비 2단계 상승했으며 2024년 3월 이후 5차례 연속 2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두바이, 서울 등에 이어 10위를 차지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창원시

내달 5일까지 '진해군항제'

제64회 진해군항제가 지난 2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날 오후 진해공설운동장에서는 2026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과 함께 공동 개막식이 열렸다. 이번 군항제는 오는 4월5일까지 10일간 '봄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여좌천 일대에서는 벚꽃과 조명이 어우러진 '여좌천 별빛축제'가 펼쳐지며, 안민고개에서는 야간 벚꽃길을 걷는 '진해 벚꽃 편 나이트워크'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군항 나이트 페스타', 속천항 일대 '감성포차' 등 다채로운 야간 프로그램도 관광객을 맞이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혜택 확대

영양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개인 연간 구매 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특히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북지역에 고등학생 1503명 유입

경북교육청 '올해 고입 전형 분석' 유출은 400명... 유입 흐름 '뚜렷' 학과개편·교육과정 혁신 등 성과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고입 전형 분석 결과, 타 시도에서 경북 지역 고등학교로 유입된 학생이 15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400명으로 나타나 경북 지역으로의 학생 유입이 뚜렷한 흐름을 보였다.

유입 학생 가운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로 진학한 학생은 989명으로, 지난해 971명보다 18명 늘었다.

세부적으로 마이스터고에는 279명이 진학해 전체 모집 정원의 31.2%를 차지했고, 특성화고에는 710명이 진학해 모집 정원의 16.9% 수준을 기록했다.

는 등 전국 단위 모집 직업계고로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고의 경우 타 시도에서 유입된 학생이 220명으로, 타 시도로 빠져나간 84명보다 약 2.6배 많았다. 자율형 사립고 역시 유입 270명, 유출 1명으로 집계돼 경북 지역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도 타 시도에서 경북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1561명, 타 시도 유출 학생은 376명으로 나타나는 등 경북 학교로의 유입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과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수요에 맞춘 취업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유연한 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학생 유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부산시, 글로벌 인재 육성에 1억 투입

부산경제진흥원과 청년 3명 선발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사업' 추진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는 4월1일부터 5월6일까지 성장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지역 청년 인재를 발굴해 세계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청년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는 2021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발굴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올해 3명의 청년을 신규 선발해 3년간 최대 1억원의 역량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차 연도 2000만원, 2차 연도 5000만원, 3차 연

도 3000만원 규모로, 개인의 역량개발 계획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 국제행사 및 세계 경진대회 참가, 작품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선발된 월드클래스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청년 간 교류와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혁신리더 ▲문화·예술 ▲미래신산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혁신리더 분야는 건축, 조리, 디자인, 기술연구, 경제, 언론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예술 분야는 문학, 음악(노래), 무용, 미술, 연극·영화, 사진 등 문화예술 전반에서 창의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을 모집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산시, 올해 학교 급식예산 278억 편성

우수 농산물·무상 급식비 지원 역대 최대규모... 약 12만명 대상

울산시가 올해 학교 급식 예산으로 278억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규모다.

시는 2026년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9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49억원 대비 44억원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무상 급식비 185억원을 합산하면 올해 학교 급식 전체 예산은 278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시내 초·중·고등학교 248개교 학생 약 12만 1000명이다. 이들에게는 울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물이 급식 식재료로 공급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단가도 대폭 올랐다. 1식당 지원 단가가 기존 219원에서 426원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됐다. 최근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조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학생 건강권 보장은 물론 지역 농가 판로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늘려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무상 급식의 경우 현재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약 12만 1000명을 대상으로 185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완도군, '작은 섬' 정주여건 개선 박차

올해는 15억 투입

완도군은 '작은 섬 공도(空島) 방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은 섬 공도 방지'는 섬 종합 발전 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고 10명 미만이 거주,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총 6개 작은 섬(장도, 대제원도, 죽굴도, 양도, 초완도, 허우도)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총 57억원을 투입, 어업 기반 시설물 정비와 진입로 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완도군 노화읍 대제원도 전경. /완도군

안동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안동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역 농협을 운영 기관으로 지정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일 단위로 농가에 파견하는 제도로, 안동시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5개소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170명 규모로 늘려 보다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에 나선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